

외국인근로자 광주 정착 돕는다…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市, 평동산단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내달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추가 개설

광주시에 한국어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평동산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교육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가 부족해 학습을 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광주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평동산단 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현장 방문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모집했다. 그 결과, 현재 평동산단 내 사업장 2곳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평동산단 내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산단 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시간은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교육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또는 생활한국어 과정으로 진행된다. 산업현장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주 1회 2시간씩 10주간 운영한다.
토픽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취업 중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을 동반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

인력(E-7)의 경우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토픽 2급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광주시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평동산단 내 사업장에 대한 추가 모집도 진행한다. 외국인근로자 10인 이상이 수강을 희망하고 교육실을 보유한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광주시는 향후 사업 성과와 제반 여건을 검토해 다른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낮선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육 장소까지 가는 게 쉽지 않

고 근로 후 이동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한국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 단계별로 한국어교실을 운영 중이다. 고려인마을과 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062-714-2732) /변은진 기자



출국하는 **李대통령 부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1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 지지율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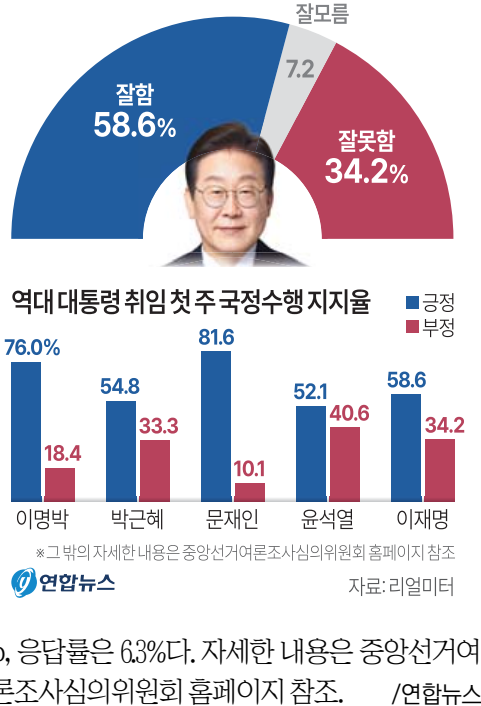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민주 49.9%·국민의힘 30.4%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역대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도와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윤석열(52.1%)·박근혜(54.8%) 전 대통령보다는 높았고 문재인(81.6%)·이명박(76.0%) 전 대통령보다는 낮았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8.8%로 긍정 평가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수층 우세 지역인 대구·경북은 47.7%로 가장 낮았고

부산·울산·경남도 48.4%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는 62.6%, 서울은 5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0%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42.8%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잘함’이 53.4%로 전주 대비 12%p 상승했다. 반면,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4.9%로 같은 기간 대비 0.6%p 하락했다. ‘잘 모름’은 5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직전 조사 대비 1.9%p 올라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0.4%로 같은 기간 4.4%p 하락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9.5%p로 전주 대비 6.3%p 더 벌어졌다.
개혁신당 지지도는 4.5%, 조국혁신당은 2.9%로 각각 전주 대비 1.3%p, 0.8%p 떨어졌으며 진보당은 1.7%로 0.3%p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율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 대상 조사(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3.1%p)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6.3%



김영록 지사, 한국에너지공대 정상화 촉구

출연금 복원·총장 선임 등 지원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우리나라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정상화해 케이(K)-에너지 대전환의 백년지대 계로 거듭나도록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RE100과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약속한 만큼 컨택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택은 2022년 특별법에 따라 나주에 개교한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총장 해임 압박, 표적 감사, 출연금 삭감 등 부당한 정치적 탄압으로 컨택의 성장을 가로막았고 당초 약속했던 연 2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2025년 1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과학기술훈원과 비교해도 명백한 차별이

라는 게 김 지사의 입장이다.
김 지사는 컨택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 삭감의 즉각적인 복원과 미래 에너지 R&D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지원 ▲에너지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갖춘 총장의 조속한 선임 등 2개 핵심 현안의 조기 해결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23년 12월 초대 총장 사임 이후 대학의 리더십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 인사를 총장 후보에 포함시켰던 지난 정부의 부적절한 시도는 절대 반복돼선 안된다”며 “에너지 전문성과 경영 역량,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가 새 총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총장 선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과 인재는 에너지 대전환 성공의 핵심이고 컨택은 그 중심에 있다”며 “학문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과 젊은 과학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컨택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정 기자

▶1면 ‘국정기획총 출범’서 계속

광주시는 또 대선공약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산업과 특성을 살려 대답하고 선제적인 국정과제 신규 제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칭 ‘인공지능(AI)부’ 신설, 가칭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사법기관 지방 이전 등이 골자다.
전남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이달 4일 발족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핵심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전남 미래발전 건의과제’ 100건, 지역 공약 실현을 위한 ‘전남공약 이행 주요과제’ 77

건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 등 건의활동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주요 건의과제는 ▲통합대학 국립의대 설립 ▲술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등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이 다.
전남도는 서울 중앙협력본부를 거점으로 김 지사와 부지사·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수시로 상주하며 국정기획위원회, 국회·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주민의견 제출 안내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참여를 위한 ‘전남개발공사 ESS 제1호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전 남 개 발 공사

1. 발전사업 명칭 : 전남개발공사 ESS 제1호 발전사업
 2. 위치 :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 일원
 3. 면적 : 약 7,000㎡
 4. 발전사업 주요내용
 - 설비용량 : 11MW (배터리 형식 에너지저장장치-BESS)
 - 사업개시 예정일 : 2027년 1월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5. 사업시행 예정자 : 전남개발공사
 6. 열람/의견제출 관련
 - 열람/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25년 6월 24일까지)
 - 제출방법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제출
- ※ 열람/의견제출처 : 전남개발공사 에너지사업처
- 우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8층 전남개발공사
 - 전화/팩스 : ☎ 061-280-0449, FAX 061-280-0429
 - 전자메일 : kjichu@jndc.co.kr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상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



광주역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의료시설,쇼핑센터등
무슨 업종이든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임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